차 례

제 1 과
공작기계생산전투의 불길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9(1970)년 11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6개년계획을 내놓으시면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새롭게 밝혀주시였습니다.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많은 공작기계가 있어야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로부터 6개년계획의 첫해전투에서 공작기계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시였습니다.

6 개년계획기간
1971 년 ─ 1976 년

주체60(1971)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눈바람을 헤치시며 희천공작기계공장을 찾으시였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먼저 조립직장에 들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립된 공작기계들을 둘러보시고 공장의 한 책임일군에게 공장에서 공작기계를 1만대 생산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공장책임일군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 결의를 말씀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공작기계 1만대를 생산하면 당장 막힌 고리가 다 풀릴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다른 직장에 들리시여 로동자들과 담화를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공장에는 언제 들어왔는가, 몇급공인가를 알아보시고 생활비는 얼마나 받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받는 생활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 기대공에게 생활비에 대해서 흥미

가 없구만 하시며 웃으시였습니다.

그 기대공은 로동계급의 마음을 담아《우리는 혁명에 충실할뿐입니다.》라고 말씀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좋소!》 하시면서 매우 만족해하시였습니다.

그 직장을 나오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로동자들이 생활비에 대하여서는 흥미가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보시오. 우리 로동계급이 얼마나 좋습니까.》

일군들은 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뜨겁게 느끼였습니다.

희천공작기계공장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터를 잡아주시고 세워주신 공장이다.

또 다른 직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공장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만든 수십m의 길이를 가진 자동화된 커다란 기계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대단하오, 정말 대단하오라고 거듭 말씀하시였습니다.

공장의 한 일군이 기계앞에 서있는 기사를 가리키며 이 기계를 설계한 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수고했다고 치하하신 다음 기름묻은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습니다.

기사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자동화된 기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였습니다.

그의 설명을 끝까지 다 들어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미소어린 눈길로 기사를 바라보시며 기계를 돌려보라고 하시였습니다.

기계가 경쾌한 동음을 울리며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윽토록 기계의 가동상태를 주의깊게 살펴보고나시여 장하오, 장해 하시며 기사의 등을 쓰다듬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공작기계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고 로동자, 기술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풀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하여 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킬것을 호소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희천의 로동계급은 공작기계생산전투의 불길을 지펴올렸습니다.

희천땅은 말그대로 부글부글 끓어번지였습니다.

희천에서 타오른 그 불길은 다른 공작기계공장들에도 세차게 번져갔습니다.

구성공작기계공장 로동계급이 자기들도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겠다고 떨쳐나섰으며 만경대와 함흥, 청진의 기계공장 로동계급들도 앞을 다투어 궐기해나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공작기계생산자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온 나라가 이들을 지원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예술인들로 무어진 경제선동대와 의료대도 보내주시였습니다.

로동자, 기술자들은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 설계를 하고 기대를 돌리고 조립을 다그쳤습니다.

그리하여 공작기계공장들에서는 날에 날마다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고 수많은 공작기계들이 생산되여나왔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비약과 혁신의 원천이 되여 대원수님의 탄생 60돐까지 3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커다란 기적이 창조되였습니다.

공작기계—기계제품의 소재를 깎는 기계. 쉽게 말하여 여러가지 기계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기계이다. 선반, 볼반, 후라이스반, 보링반, 타닝반 등이 속한다.

3대기술혁명과업—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혁명과업.

제 2 과
의료기구생산에 깃든 이야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군인민병원들을 더 잘 꾸리고 리진료소들을 병원화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이 과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의료기구들을 충분히 보장하는것이였습니다.

의료기구보장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60(1971)년 2월 어느날 어느 한 공장의 분공장에서 의료기구를 만들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곳을 현지지도하시였습니다.

분공장에서 만들고있는것은 관절운동기구나 알약찍는기계 같은 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의료기구작업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일군들에게 만들바에야 치과기구나 이비인후과기구를 만들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더니 걸상들을 가져다놓고 이 자리에서 협의를 해보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작업장에서 예견치 않았던 협의회가 열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먼저 의료기구를 만드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가, 공장의 설비상태와 로동자들의 기술수준은 어떠한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리신 다음 의료기구를 생산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고 지금처럼 단순하고 덜 긴절한 의료기구만 만들지 말고 대담하게 현대적인 종합치료기구를 만들어보라고 이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애로되는것은 다 풀어줄테니 잘 타산해가지고 우선 둬가지 의료기구생산을 전문화해보라고 고무해주시였습니다.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교시를 뜨겁게 받아안고 그 관철을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의료기구생산에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분공장을 다녀오신지 두달이 되던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건성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지금 우리 나라 공업의 발전수준에서는 의료기구들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달라붙는것이다,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마다, 지방마다 의료기구를 만들도록 하자고 교시하시였습니다.

며칠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중요한 회의를 여시고 다른 문제들과 함께 보건사업을 더 잘해나가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무상치료제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분공장 로동자들이 올해 4.15까지 좋은 의료설비를 만들겠다고 애를 쓰다가 아직 완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시작이 절반이라고 대담하게 달라붙으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참가자들에게 의료기구를 만드는것을 신비하게 생각하거나 남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습니다.

회의가 있은 후 수많은 공장들에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교

시를 높이 받들고 의료기구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의료기구들이 생산되였으며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뜻깊게 경축한 봄에는 기계공업선물전시관에 의료기구관을 꾸려놓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전시관에 나오시여 공작기계관, 자동화계기기구관에 이어 의료기구관을 보아주시였습니다.

의료기구관에는 구강종합치료대, 이비인후종합치료대, 인공호흡기, 물리치료기구, 현미경 등 다종다양한 의료설비들이 그쯘히 전시되여있었습니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의료기구들을 군병원과 공장병원들에 놓을것을 타산하여 전시하였다고 보고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며 군병원이 이만한 수준이면 괜찮습니다, 군병원과 공장병원을 이만하게 꾸리면 좋습니다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분공장에서 만든 구강종합치료대와 이비인후종합치료대를 보시면서 이런것을 하나 놓으면 군병원이 환해질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날 여러 의료설비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의료기구생산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였습니다.

그후 의료기구생산은 크게 늘어났고 보다 새로운 치료설비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인 의료기구생산은 이렇게 시작되였으며 군병원들을 더 잘 꾸리고 리진료소들을 병원화하는 사업은 힘있게 다그쳐지게 되였습니다.

병원화—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에서 농장원들에 대한 무상치료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

제 3 과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56(1967)년부터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해오고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1970년대에 이르러 더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인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소학교 입학나이를 몇살로 하는것이 좋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6살에 입학시켜 공부하게 할수 있다고 보시였지만 그것이 나라의 앞날과 관련된 문제인것만큼 꼭 시험단계를 거쳐 입학나이를 결정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도시와 로동자구, 벌방지대와 산간지대의 각이한 수준의 학교들에 시험학급을 내오고 6살 나는 어린이들을 받아 시험적으로 교육해보도록 하시였습니다.

이러한 시험교육을 포치하신지 1년이 되던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국의 시험학급담임교원들을 평양으로 부르시였습니다.

교원들을 따뜻이 맞이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온 6살에 입학한 학생들이 쓴 국어, 산수학습장들과 시험답안지들을 보아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원들로부터 그동안 실시해온 시험교육과정을 하나하나 보고받으시였습니다.

교원들은 저마다 6살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와 처음 얼마동안은 좀 힘들어하였지만 후에는 모두 최우등, 우등생이 되였다는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바쁘신 일도 뒤로 미루시고 이렇게 교원들과 마주 앉으시여 5시간나마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의논하시면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처럼 세심한 보살피심과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주체61(1972)년 9월 1일부터 11년제의무교육이 점차적으로 실시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날 귀여운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학교로 가는 학부형의 심정으로 개학모임을 가지는 **김성주**소학교(당시 대동문인민학교)를 몸소 찾으시였습니다.

《만세!》의 환호성이 높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학교마당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6살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축하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들이 메고있는 책가방을 친히 여시고 교과서와 학습장, 연필 등을 제대로 가지고왔는가를 살펴보시였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 교실에 들어가시여 신입생들을 만나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키낮은 책상에 손을 짚으시고 학생들에게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살인가,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느 직장에 다니는가를 하나하나 물으시였습니다.

6살 난 어린이들은 씩씩하고 똑똑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다른 교실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시험학급학생들의 교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하루에 공부를 몇시간씩 하는가, 어느 과목이 힘든가고 하시며 그들의 학습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소년단회의에서 누가 비판을 받아보았습니까?》라고 물으시였습니다.

두명의 학생이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시험학급학생들이 어떻게 자라나고있는가를 료해하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6살에 학교에 받아들여도 그들이 공부를 할수 있겠는가를 알아보자고 그동안

시험하여보았는데 확실히 할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마침내 주체64(1975)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1년제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개학날에 평양창전소학교를 찾으시여 또다시 어린이들을 만나보신 다음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잘해나가기 위한 과업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11년제의무교육의 넓은 대문에 들어선 새 세대들은 참된 혁명전사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지난 시기 모든 청소년들에게 4년제 소학교와 5년제 중학교에서 무료로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주던 의무교육제도.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모든 새 세대들에게 로동할 나이가 될 때까지 1년동안의 학교전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교육을 주는 완전한 중등무료의무교육제도.

제 4 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축원도 사양하시며

우리 인민은 주체61(1972)년에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이 크나큰 경사를 맞이하는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려는 한마음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 6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 끝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성대한 행사

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만수대에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로 웅장하게 일떠세웠습니다.

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동상제막식과 조선혁명박물관 개관식을 4월 15일에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세계혁명적인민들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인류공동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들을 준비하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가장 성대히 경축하는것은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념원이고 응당한 도리였으며 세계인민들의 심정이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자신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그 어떤 국가적행사에도 동의하지 않으시였으며 모든 행사준비를 엄하게 막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4월 15일 경축행사계획을 비준하여주실것을 말씀드릴 때마다 그들을 만류하시다가 나중에는 정 그렇게들 하겠다면 자신께서는 그날 농촌에 나가서 조용히 지내시겠다고까지 하시였습니다.

4월 15일이 다가오고있던 어느날 항일혁명투사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뵙고 다시한번 청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의가 너무도 절절하여 한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렇게 조용히 타이르시였습니다.

《동무들의 심정을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러나 동무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면 아무쪼록 그러지 말아주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그저 그날을 조용히 지내도록 해주면 고맙겠소, 그것이 나를 생각해주는것이고 나를 도와주는것이요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나 항일투사들은 그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타이르시다 못해 정 동무들의

소원이 그렇다니 그날 기념사진이나 찍고 학생들이 준비한 예술공연이나 보자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온 나라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제의만을 비준해주시였습니다.

인민을 위해서는 모든것을 바치시면서도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사양하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숭고한 풍모앞에 항일투사들은 깊이 머리를 숙이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4월 15일을 계기로 하게 되였던 여러 행사들이 미루어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일이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4월 15일을 앞두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에서는 공동명의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축하문을 삼가 드렸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축하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많은 축하편지와 선물을 보내오고 대표단들이 찾아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우러르는 뜨거운 마음이 온 강산에 굽이치는 가운데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4월 15일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장 뜻깊은 이 아침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축하하는 연회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들과 동지들의 간절한 소원을 더는 막을수 없으시여 연회장에 나오시였습니다.

연회에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축하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열렬한 박수와 환호가 그칠줄 몰랐습니다.

잠시후 연탁에 나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뜨거운 눈길로 연회참가자들을 둘러보시며 자신의 심정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몇마디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슬하에서는 열다섯살까지 살고 그다음부터는 지하투쟁을 할 때나 무장투쟁을 할 때나 언제나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살아왔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주고 키워주었으며 나와 함께 굳게 손을 잡고 싸워온 전체 동지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와 같이 건강한 몸으로 국가사업과 당사업, 혁명사업을 해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동지들의 덕택입니다.》

그처럼 조국과 인민앞에 영원히 빛날 업적을 쌓아올리시고도 그것을 동지들의 덕택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며 연회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이 뜻깊은 4월에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사양하시며 모든 영광을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고매한 풍모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꼈습니다.

제 5 과
항일혁명렬사들을 잊지 못하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이 번영하고 인민들의 행복과 기쁨이 커갈수록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렬사들을 더욱더 잊지 못해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위해 자신께서 무엇을 더 해줄것이 없겠는가에 대하여 늘 생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앞두고 온 나라가 명절분위기로 들끓던 주체61(1972)년 4월 어느날이였습니다.

대성산에 혁명렬사릉을 건설할것을 여러해동안 구상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렬사릉터전을 잡아주시기 위하여 대성

산을 찾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성산에 이르시여 제일 좋은 자리를 고르시려고 높고낮은 봉우리들을 오르내리시였습니다. 그러시던 끝에 번영하는 수도 평양의 모습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주작봉마루에 혁명렬사릉의 터전을 잡아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4월 17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여시고 대성산에 혁명렬사릉을 건설할데 대한 문제를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건설을 전당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며 혁명렬사들의 반신조각상을 만들어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이렇게 혁명렬사릉건설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항일혁명투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먼저 간 전사들을 잊지 못해하며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책동무, 이런 때 그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안길동무, 강건동무, 류경수동무, 최춘국동무, 김경석동무, … 모두 고생들도 많이 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일들도 많이 한 동무들인데 다 먼저 가버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잊지 못해하시는 그 이름들가운데는 곁을 떠난지 수십년이 넘는 전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신 그 멀고도 오랜 나날에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처럼 가슴아파하시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에 투사들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높은 뜻에 따라 마침내 혁명렬사릉을 꾸리는 사업이 진행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혁명렬사릉을 꾸리는 사업을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여름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곁을 떠난 옛 전사들을 한사람한사람 더듬으시며 종이우에 그들의 이름과 생일, 혁명에 참가한 년도와 전사한 날자들을 적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며칠째 큰 회의를 지도하시기에 몹시 피로하시였지만 또다시 대성산을 찾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일군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렬사릉에 안치할 투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피심에 의하여 혁명렬사릉에 안치할 렬사들이 정해지고 그들의 반신조각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곁을 떠난 전사들속에는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혁명렬사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느 동무는 지금의 누구와 비슷하고 또 어느 동무는 그의 딸모습과 같으며 어느 동무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알수 있다고 일일이 말씀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옛 전사들을 렬사릉에 안치할 차례도 정해주시였습니다.

어느날에는 혁명렬사들의 반신조각상을 만드는 곳을 찾으시였습니다.

잊지 못할 전사들의 옛 모습을 차례로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 조각상앞에 이르시여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습니다.

《리광동무로구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살아웃는듯 한 전사의 모습을 눈여겨보시며 인차 그앞을 떠나지 못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러한 은정깊은 사랑과 높은 뜻이 실현되여 대성산에 혁명렬사릉이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주체64(1975)년 10월 어느날 완공된 혁명렬사릉을 찾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비문을 구절구절 읽어보시고 반신조각상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그들의 이름도 불러보시고 투쟁내용도 추억하시였습니다.

혁명렬사릉은 그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더욱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혁 명 렬 사 릉

진정 항일혁명렬사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끝없는 영광을 안고 영생의 언덕우에 높이 서있습니다.

제 6 과
북남대화의 문을 여시여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라안팎의 정세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좋게 발전하고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서 힘을 얻은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힘찬 투쟁을 벌렸습니다.

세계인민들속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대렬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미제의 침략정책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새로운 폭넓은 협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만나 통일문제를 토의할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이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괴뢰도당에게 들이대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북과 남사이의 그 어떤 접촉도 반대하던 남조선괴뢰도당은 하는수없이 대화의 마당에 끌려나오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북남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진행되게 되였으며 이와는 따로 북과 남의 높은 급의 회담도 진행되게 되였습니다.

주체61(1972)년 5월초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남조선측에서 온 대표를 만나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가 비록 미제를 등에 업고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못된짓을 일삼아왔지만 나라의 통일문제를 의논하는 마당에 제발로 찾아왔으므로 과거를 묻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민족의 분렬로 오래동안 헤여졌던 같은 동포끼리 만나니 대단히 반갑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너그러우신 인품에 마음이 어지간히 풀린

남측대표는 대원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양에 오게 된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올리였습니다.

이어 담화는 통일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워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밝혀주는 귀중한 말씀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기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통일을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방법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또한 북과 남의 사상의 차이, 제도의 차이 등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남측대표는 수상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수상님께서 밝혀주신 이 세가지 원칙을 통일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삼고 나갈것을 수상님앞에 맹세합니다.》라고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누구에게나 리해되고 접수되는 가장 옳바른것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던 남조선측도 감히 다른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7월 4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였

습니다.

북남공동성명은 전체 조선인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북남적십자단체들의 본회담과 북남조절위원회가 평양과 서울에서 엇바꾸어 진행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민족대단결—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하는것.

제 7 과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에 대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는 뜨거운 어버이사랑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해마다 많은 량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조국의 참된 아들딸로 키우시였으며 그들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면 바쁘신 일도 뒤로 미루고 만나시여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였습니다.

주체61(1972)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여름방학기간에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였습니다.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궁전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크나큰 감격에 휩싸여있는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따뜻이 이야기를 나누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그들의 예술공연을 보아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공연종목이 바뀔 때마다 제일먼저 크게 박수를 쳐주시며 잘한다고 치하해주시고 공연이 끝난 다음 그들

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함이 모셔진 손목시계를 선물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시계함을 하나하나 열고 시계는 잘 돌아가는지, 흠집이 없는지 일일이 살펴보시면서 학생들과 교원들의 손에 쥐여주시였습니다.

한없이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받아안은 한 녀학생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마음속깊이 간직했던 맹세의 말씀을 올리였습니다. 그러나 감격에 목이 메여 말소리가 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녀학생의 마음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그의 입가에 다정히 귀를 기울이시였습니다. 그제서야 녀학생은 목숨이 지는 순간까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충직한 딸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렇지, 조국의 참된 딸이 되여야 한다라고 하시며 그의 볼을 어루만져주시고 꼭 껴안아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재일조선청소년들은 모두다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는 혁명가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음날 한 일군을 찾으시여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의 참관일정을 알아보시고 비가 많이 오는 조건에서 그들이 백두산을 비롯한 량강도답사를 잘할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은 조국에서 참으로 뜻깊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평양시 청소년학생들과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의 련환회를 마련해주시고 련환회

장소에 나오시여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을 또다시 만나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의 인사를 받으시며 그사이 즐겁게 지냈느냐, 너희들이 보고싶어서 오라고 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의 노래를 들어보자고 하시였습니다.

청소년학생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신 행복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시랑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공연은 마감에 이르러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은《조국을 떠나면서 부르는 노래》를 절절하게 불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눈앞이 흐려지시는듯 몇번이나 안경을 벗어 닦으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학생소년들과 헤여지실 시간이 되였다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없소, 내 저 학생들과 잠시라도 더 함께 있고싶소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어버이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그들에게로 다가가 한명한명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주시고 볼을 비벼주시였습니다.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은 울음섞인 목소리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고맙다고, 조국의 소식을 재일동포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하시면서 그들을 오래도록 껴안아주시였습니다.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의 눈물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옷을 적시였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흘러서야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과 헤여지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이 탄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들어 바래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조국을 떠나게 된 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에 대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끝이 없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은 그대로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여 그들은 거친 이국땅에서도 오직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된 혁명전사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장학금－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생들에게 학비나 생활비로 쓰도록 나라에서 내주는 돈.

제 8 과
《농장원들이 등짐을 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놓으시면서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고 6개년계획기간에 많은 농기계들을 만들어 농촌에 보내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농기계들이 어떻게 쓰이고있는가를 몸소 알아보시였습니다.

주체62(1973)년 11월초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평안남도 개천군(당시) 외서협동농장길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벼단을 가득 실은《전진》호뜨락또르가 마주 달려오다가 길옆에 비켜서서 승용차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것이였습

니다.

뜨락또르운전대에는 애어린 처녀운전수가 앉아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승용차가 뜨락또르옆에 다달으자 차를 세우고 내리시였습니다.

꿈결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뵙게 된 처녀뜨락또르운전수는 《어버이수령님!》 하고 저도모르게 환성을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를 손짓해 불러주시였습니다.

처녀는 옷매무시도 바로잡지 못한채 뜨락또르에서 내려 한달음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로 달려가 모자를 벗고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린 동무가 수고한다고 하시면서 처녀의 기름묻은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뜨락또르를 좀 보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뜨락또르를 구석구석까지 살펴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정한 음성으로 《전진》호뜨락또르가 벼단을 얼마나 싣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처녀가 700㎏을 싣는다고 대답을 올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하루에 몇번씩 실어나르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처녀는 15번 실어나른다고 대답올리였습니다.

잠시 속셈까지 하여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하루에 10t 500㎏을 실어나른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어제 몇시까지 일하였는가를 알아보시고 밤 12시까지 뜨락또르를 몰았다는데 팔이 아프지 않은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처녀는 《어버이수령님, 일없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힘찬 목소리로 말씀드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그의 손도 쓸어보시고 손목의 굵기도 가늠해보시면서 충분히 휴식을

하며 제때에 식사를 해야 한다고 따뜻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처녀운전수와 담화를 하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 방향을 가리키시며 뜨락또르를 저쪽으로 몰아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몰수 없었습니다.

뜨락또르의 발동은 멎어있었는데 그만 시동전동기를 떼놓고왔기때문에 다시 발동을 걸수가 없었던것입니다.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이고 서서 발끝으로 땅금만 긋고있는 처녀운전수에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왜 그러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처녀는 잦아드는 목소리로 시동전동기를 두고 온 사실을 말씀올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승용차운전수에게 승용차로 뜨락또르를 끌어서 발동을 걸어주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처녀운전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승용차에 끌리여 얼마간 가던 《전진》호뜨락또르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처녀운전수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앞에서 뜨락또르운전을 하게 된 더없는 영광과 기쁨을 안고 뜨락또르를 몰아나갔습니다.

처녀운전수가 뜨락또르를 몰고 되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뜨락또르에서 내린 처녀운전수를 다시 불러 그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고 우리 농민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기 위해 수고하는 동무들과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가까이에서 일하던 다른 뜨락또르운전수까지 부르시여 사랑의 한품에 안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크나큰 감격에 휩싸여있는 운전수들에게 농장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농장원들이 등짐을 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농장원들이 등짐을 지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농민들 특히 농촌녀성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어버이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일을 잘해나갈 마음속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에는 많은 농사일을 기계로 하면서 흥겹게 농장벌을 가꾸어가는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제 9 과
인민을 위한 대학습당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혁명의 수도 평양시 중심부의 남산재우에 인민대학습당을 일떠세워주시였습니다.

주체62(1973)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대학습당의 터전을 잡아주시기 위하여 일군들과 함께 남산재에 오르시였습니다.

눈덮인 재등에 오르시여 수도의 전경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제는 이곳을 정리할 때가 되였다고 하시면서 평양에는 이미 인민문화궁전도 짓고 학생소년궁전도 있으니 여기에다는 인민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도서관을 하나 크게 짓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남산재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오래동안 아껴오시던 곳이였습니다.

언제인가 한 설계일군이 수도중심부를 위엄있게 꾸릴 생각으로 남산재에 정부청사를 건설할 설계안을 제기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설계안을 밀어놓으시며 무엇때문에 그 좋은 곳에 정부청사를 앉히겠는가, 도시중심에는 정부청사가 아니라 인민들이 많이 쓰는 공공건물을 앉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수십년세월 아껴오시던 자리에 인민들이 리용하면서 깊은 과학지식을 소유할수 있는 큰 건물을 일떠세우도록 하신것이였습니다.

다음해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남산재에 일떠세울 건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인민들과 설계가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새로 짓는 도서관이름을 **김일성**도서관 또는 **김일성**학습당으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일성**도서관〉 또는 〈**김일성**학습당〉이라고 하지 말고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할것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공부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인민대학습당〉이라고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인민대학습당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다고 하시였습니다.

인민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높은 뜻에 의하여 수천년을 헤아리는 세계의 도서관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대학습당이라는 이름이 태여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수도의 중심부에 터를 잡아주시고 인민이라는 뜻깊은 두 글자를 붙여 이름을 지어주신 대학습당을 인민들의 마음에 들게 건설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인민들의 의사에 맞게 대학습당형성안을 만들기 위해 전국적인 현상모집이 진행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형성안현상응모작품들가운데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조선식건축물로 된 형성안 하나를 정해주시였습니다.

그리시고도 인차 결심하지 않으시고 그림으로만 보아서는 잘 알수 없으니 모형을 만들어놓고 다시 검토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

였습니다.

그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치심에 의하여 인민대학습당형성모형이 완성되였습니다.

주체68(1979)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완성된 인민대학습당형성모형을 보아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대학습당을 바로 이렇게 조선식건물로 남산재우에 중심건물로 앉혀야 우리 나라가 인민의 나라,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서의 면모를 더 잘 갖추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인 민 대 학 습 당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인민대학습당을 조선식건물형성안대로 건설하여야겠다고 결론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건설장에 자주 나오시여 건설사업을 세심하게 지도하시였습니다.

어느날에는 지방현지지도를 마치고 평양에 도착하시는 길로 인민대학습당건설장을 찾으시였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비내리는 속에서도 대학습당의 중심지붕수정공사정형을 살펴보시더니 지붕을 낮추니 한결 보기 좋아진

것 같은데 인민들의 의견이 어떤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정형을 보고드리면서 누구나 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러면 됐다고, 인민들이 지지하면 합격이라고 하시면서 만족해하시였습니다.

오직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민대학습당은 건설을 시작한지 2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되였습니다.

참으로 평양의 중심부에 웅장하게 솟은 인민대학습당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이 뜨겁게 깃들어있습니다.

《이민위천》—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뜻으로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지켜오신 좌우명.

제 10 과
《오국리의 건설주는 내가 되겠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촌살림집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어줄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후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농촌마을에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며 수도화, 빼스화를 실현할데 대한 과업을 내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주체63(1974)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안악군 오국리를 찾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마을어귀에서 풍년모내기가 한창인 마을의 전경을 바라보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이곳 일군들에게 그전에 왔을 때는 살림집을 좀 짓느라고 하였는데 이번에 와보니 그

런것도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10여년전 오국마을에 오시여 터를 잡아주신 곳에 아담한 살림집들이 들어앉은 후 이곳 사람들은 이제는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면서 농사일에만 힘을 돌리고있었던것입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농민들에게 좋은 살림집들을 지어주시고도 그에 그치지 않으시고 오국리를 하루빨리 도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고 마음쓰고계시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농장일군들에게 살림집건설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농장의 면모를 완전히 개변시키자고 말씀하신 다음 마을을 떠나시였습니다.

다음날 신천에서 농촌건설부문 일군협의회가 열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손수 오국리의 지형도를 짚어가시며 마을의 위치와 새로 지을 살림집의 모양, 집안구조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무엇이든 다 주겠으니 1년동안에 오국리를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농촌으로 건설해보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쌀을 생산하느라고 수고하는 농민들을 건설에 돌려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시며 건설력량을 친히 무어주시고 오국건설대라는 이름까지 달아주시였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건설자재를 실어나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고도 빈구석이 있는듯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윽고 나직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오국리건설을 누가 책임지고 한다?…

그래도 누가 건설을 책임져야겠는데…》

감격과 흥분에 휩싸였던 회의장안은 갑자기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자애에 넘치는 눈길로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오국리의 건설주는 내가 되겠소!》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

습니다.

오국리건설에 대한 지휘를 친히 맡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건설설계를 완성해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시였으며 건설이 한창이던 그해 9월에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한해동안에 1 300세대의 아담한 살림집을 비롯하여 상업망과 갖가지 편의봉사시설, 탁아소와 유치원, 병원 등을 훌륭히 갖춘 새 마을이 일떠섰습니다.

다음해 6월 오국리건설이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이 마을을 찾으시였습니다.

전망대에 오르시여 새로 일떠선 마을의 전경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새로 지은 어느 한 집으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그 집은 한채에 네세대가 살게 된 벽돌집이였는데 한세대에서 아래웃층을 다 쓰게 되여있었습니다.

아래층은 알른알른하게 장판을 한 온돌방이고 웃층의 두칸짜리 방에는 옷장과 이불장, 책장과 책상, 재봉기와 텔레비죤수상기가 그쯘하게 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여러가지 부엌세간들과 수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목욕탕과 위생실까지 다 갖추어져있는 참으로 아담하고 문화적인 살림집이였습니다.

너무도 황송하여 그 집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것이 왜 꿈이겠습니까. 지금은 로동당시대가 아닙니까. 당이 농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베풀어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마을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살림집을 잘 거두며 살림집주변과 길옆에 과일나무를 심고 록지와 꽃밭을 만들어 마을을 살기 좋게 더 잘 꾸릴데 대하여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농장에 뻐스와 탁아소어린이차, 수많은 자전거 그리고 화물자동차를 선물로 보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이러한 새 마을은 오국리만이 아니라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서게 되였습니다.

제 11 과
한가지 약속만은 지키지 못하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커가는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며 쉬임없이 일하시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하루밤만이라도 편히 주무실것을 간절히 바라는 친위대원들에게 《우리 전쟁이 승리한 다음 푹 쉬자구.》라고 하시며 그들의 등을 쓸어주군 하시였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약속만은 지키지 못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께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밤을 새워가며 사업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시던 주체64(1975)년 5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40℃를 오르내리는 무덥고 메마른 기후조건에서 회담을 하시고 시내 여러곳을 돌아보시였으며 환영군중대회에 참석하시여 연설도 하시였는데 밤 11시가 되여서야 그날 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 한 외국기자를 만나주시려고 하였습니다.

전쟁의 나날 친위대원이였던 한 일군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수령님, …오늘 밤은 쉬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일군들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휴식하실것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

습니다라고 하시고는 겹쌓인 피로를 이겨내시며 밤 1시가 넘도록 외국기자를 만나 담화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로부터 몇해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황해남도를 현지지도하실 때였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일군은 이날도 밤이 깊도록 문건을 보고계시는 대원수님께 하루밤이라도 편히 쉬실것을 바라며 절절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령님,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는 일없소, 산에서 싸울 때부터 늘 잠을 적게 자다보니 이제는 버릇이 되여서 피곤을 느끼지 않소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시고는 다시 부피 두터운 문건을 한장 또 한장 번지시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보내시는 하루하루는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날 한 일군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점심상을 마주하신채 책을 읽고계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책을 가지고 대안중기계공장에 가서 그곳 일군들과 토론하여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 책에는 새로운 기술이 소개되여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안에서 그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식사는 아예 잊으신듯 하였습니다.

일군은 《수령님, 음식이 다 식었습니다.》라고 말씀올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 명절날과 일요일을 다 합치면 7년이 넘는 세월과 맞먹는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 방법을 꼭 생산에 받아들이도록 하라고 이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식사를 하고 지어 리발을 하시는 짧은 시간도 아끼시며 록음자료를 들으시면서까지 사업을 계속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만사람의 축복속에 휴식하셔야 할 탄생일에도 쉬임없이 일을 하시였습니다.

주체77(1988)년 4월 15일이였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세계 각국 예술인들과 해외동포들의 련환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집무실에 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밤늦게까지 전화로 한 일군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일군은 가르치심대로 집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수령님, 오늘은 명절입니다. 오늘 밤은 좀 쉬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올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고맙소, 더 늙기 전에 한가지 일이라도 더 하자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은 소리없이 눈물을 삼키였습니다.

잠시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인민의 그 마음만은 받아주지 못하시며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휴식없는 날과 달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제 12 과
자력갱생을 잘하는 공장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주체67(1978)년부터 제2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제 2 차 7 개년계획기간
1978년 ―1984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제2차 7개년계획수행에 떨쳐나선 우리 로동계급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시였습니다.

주체68(1979)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습니다.

그때 이 련합기업소에서는 아닐론공장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조업준비를 다그치고있었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기쁘신 안색으로 공장건물을 바라보시며 공장을 잘 지었다고 만족해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여러 직장들을 차례로 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그럼 이제부터 동무들의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하시며 한 직장의 복도에 놓여있는 보통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였습니다.

일군들이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기가 좋다고 하시며 기업소의 일군들에게 앞으로 공장을 운영하는데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지배인이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촉매와 일부 자동화계기 그리고 부속품들은 수입할것을 예견하였다고 말씀올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좋은 공장을 지어놓고 수입에 의존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원료와 부속품들을 계속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 자력갱생을 못한다고 말씀하시였

습니다. 그러시면서 부득이한것만 사오는 원칙에서 다시 따져가지고 보고하라고 하시였습니다.

지배인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여러가지로 생각해본 다음 촉매와 보조약제 그리고 제기한 몇몇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겠다고 뒤늦게나마 말씀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지난 시기 이 공장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보여준 그 훌륭한 모범을 계속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날에 있은 일들을 돌이켜보시였습니다.

몇해전 어느 시운전때 있었던 일이였습니다.

그때 외국회사의 대표들은 우리 나라 기술자들을 얕보고 저들이 시운전을 하지 않으면 폭발한다고 하면서 많은 시운전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과학자돌격대와 힘을 합쳐 자체의 힘으로 시운전을 해내고야말았습니다.

또 언젠가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교시를 받들고 제일 걸렸던 베아링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때의 일들을 되새기고나시여 앞으로도 자력갱생하는 기풍을 계속 보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새긴 이 공장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수입에 의존하려던 생각을 버리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떨쳐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촉매와 부속품, 자재들을 기업소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기지가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선 때에도 이곳 로동계급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시였습니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
1987년—1993년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기업소의 실태를 료해하시고나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촉매와 보조약제, 부속품 같은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남흥화학이 갱질관 같은것도 다른 나라에서 사오지 말고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업이 발전된 몇개 나라에서만 만드는 이 관을 전문금속공장도 아닌 이 공장에서 만든다는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그 생산기지를 꾸리는 전투를 힘있게 벌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과학원의 기술자들도 보내주시고 특수설비도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공장에서는 갱질관생산기지를 꾸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기업소에서 생산한 갱질관을 보시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습니다.

그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이 기업소를 찾아주시였습니다.

이날 공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공장이 현대적이라고 하시면서 《이 공장에서 잘한것은 자력갱생한것입니다.》라고 치하해주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기에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련합기업소－기본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직접 복무하는 기업소들을 통합하여 조직한 기업소.

조업－생산기관에서 기계를 움직여 생산활동을 시작하는것.

제 13 과
주체의 빛발은 온 누리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았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여나가는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습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여러가지 명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을 무었습니다.

주체58(1969)년 4월 말리에서 처음으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조직된데 뒤이어 여러 나라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많이 나오고 주체사상을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지역적 및 세계적규모에서 주체사상의 연구보급을 맡아보는 기관들이 조직되였습니다. 주체67(1978)년 2월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가 나오고 뒤이어 일본 도꾜에 사무국을 둔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나왔으며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지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토론회, 강습회 등이 활발히 진행되였습니다.

주체66(1977)년 9월에는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73개 나라와 4개의 국제기구들에서 온 89개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한 주체사

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들을 출판하여 보급하는 사업도 적극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진보적인 단체들과 출판사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로작을 출판하는 사업이야말로 자기들의 가장 성스러운 임무라고 하면서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출판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출판인쇄소 등을 조직하고 대원수님의 로작들을 대대적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주체사상탑

그리고 **김일성**도서관, **김일성**서점 등을 내오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로작들을 광범히 보급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글을 써서 널리 보급선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가운데는 심장의 고동이 멎을 때까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글을 쓰다가 세상을 떠난 이름있는 학자들, 언론인들도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널리 보급되고 세계적으로 주체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대렬이 늘어남에 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정은 날로 더욱 높아갔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해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기념일이 되면 여러가지 경축행사들을 성대히 진행하였으며 대원수님께 축전과 축하편지, 지성어린 선물들을 삼가 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을 안고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 대원수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살며 일하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어느 나라의 한 공산당원은 조국해방전쟁때부터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초상화를 자기 가정에 모셔왔으며 이딸리아의 한 의사는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의 스승으로, 세계인민들의 태양으로 우러러 높이 모시고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앞에서 매일 그이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는 심정으로 생활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대원수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창조물들에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존함을 모시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기 나라의 한 식물학자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꽃을 **김일성**화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는 **김일성**거리, **김일성**부대, **김일성**학원 등이 련이어 생겨났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르는 세계인민들의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고있습니다.

주체93(2004)년 7월에는 70여개 나라와 지역들에서 400여회에 걸쳐 주체사상연구토론회를 비롯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였습니다.

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20세기의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가장 걸출한 령도의 천재, 인덕의 최고화신으로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신 후부터 주체92(2003)년 3월

까지의 기간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조직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110여개나 됩니다.

참으로 주체의 찬란한 빛발은 온 누리에 차고넘치고있으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는 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은 영원합니다.

제 14 과
한줄기의 해로운 연기도 허용하지 않으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공장을 하나 세워도 그 어떤 리익보다 먼저 그것이 주민지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는가부터 생각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에게 가장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도록 일군들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69(1980)년 7월 어느날이였습니다.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도에서 생산한 경공업제품들과 기술혁신전시품들을 보아주시였습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전시품앞에 이르시였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기업소일군으로부터 류산가스로 인한 공해현상을 없앨수 있게 된 설명을 들으시였습니다.

설명을 다 들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였다고 높이 치하해주시고나서 다시한번 설명하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군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으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가만 하고 말을 제지시킨 다음 이렇게 물으시였습니다.

《질안직장 굴뚝으로 나가는 노란 연기는 언제까지 없애겠습니까?》

그 일군은 그만 당황하여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노란 연기문제는 이 직장이 건설된지 몇해 되지 않던 때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그때 벌써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가스냄새가 나거나 노란 연기가 나는것과 같은 현상은 참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던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노란 연기를 없애기 위한 연구사업을 밀고나갔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되도록 효과적인 방도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일군들은 연구사업을 포기하고 그 대신 굴뚝을 더 높이여 연기피해를 적게 받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후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일군들에게 심중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굴뚝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유해가스를 없애지 못하므로 가스를 잡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거듭되는 간곡한 말씀을 받고 공장에서는 다시금 노란 연기를 없애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여러해동안 거듭하면서 애써 연구한 결과 마침내 노란 연기를 잡는 방도와 잡은 연기로 다른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사를 벌리자면 많은 자금과 귀중한 자재가 있어야 했습니다.

너무도 아름차서 이곳 일군들은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한해 두해 미루어온것이 이날까지 끌어오고있었던것입니다.

노란 연기를 언제까지 없애겠는가 하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물으심에 일군은 죄송스러운 마음을 안고 올해 화학비료생산계획을 끝내고 다음해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올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음해까지 미룰수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도와주면 안되겠소?》라고 물으시였습니다.

잠시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비료도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어데 있습니까, 공해방지투쟁을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내세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

다. 그러시면서 천만금도 아끼지 않을테니 당장 공사를 시작하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사회주의사회에 공해현상이 있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공해를 없애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자고 다시금 이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도록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접한 기업소안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궐기모임을 가진 후 노란 연기를 없애기 위한 공사에 떨쳐나섰습니다.

그리하여 1년이상 걸린다던 공사를 두달 남짓한 기간에 끝내고 시운전을 하였습니다. 높이 솟은 굴뚝에서 흘러나오던 노란 연기가 차츰 연해지더니 어느새 노란색이 완전히 없어지고말았습니다.

순간 굴뚝을 지켜보던 군중들속에서는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눈굽을 적시며 만세를 부르는 군중들은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웠습니다.

한줄기 해로운 연기를 두고도 그토록 마음쓰시며 우리 조국에 세상에서 가장 맑고 푸른 하늘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인민들은 대를 두고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3대혁명소조원－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을 다그치기 위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성원.

제 15 과
서해갑문건설에 깃든 현명한 령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1980년대에 이르러 대동강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서해갑문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서해갑문을 건설하는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갑문자리를 바로 정하는것이였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나라들에서 건설한 갑문들가운데는 그 자리를 잘못 잡아 언제아래에 감탕이 쌓이기때문에 제대로 은을 내지 못하는 갑문들이 있었습니다.

주체70(1981)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서해갑문을 일떠세울 자리를 잡아주시기 위하여 남포지구에 나오시였습니다.

거듭되는 사색과 탐구끝에 끝살뿌리와 피도, 광량만사이를 가로질러 갑문을 건설하기로 하시고 현지에서 그것을 확정해주시려고 오시였던것입니다.

이날따라 바람이 일고 파도가 세기때문에 일군들은 좀 잔잔해진 다음에 바다로 떠나실것을 말씀드리였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만한 파도는 일없다고 하시며 흔들거리는 잔교를 건너 배에 오르시였습니다.

배는 물결을 헤치며 날바다로 향하였습니다.

이윽고 배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정하신 계선에 이르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계선의 량쪽기슭을 바라보시다가 손으로 금을 쭉 그어보이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남포갑문위치는 끝살뿌리－피도－광량만사이로 확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손길을 따라 물면을 바라보던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 계선은 바다쪽의 물은 맑고 대동강쪽의 물은 흐려있는것이

뚜렷이 알리는 곳이였습니다.

바다쪽의 물이 맑은것은 그밑에 감탕이 적게 깔려있기때문이였는데 일군들이 수십번을 지나다니면서도 눈여겨보지 못한 현상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번에 찾아보신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에게 갑문을 끌살뿌리-피도-광량만사이에 건설하면 날바다이고 파도가 일기때문에 감탕이 가라앉지 않을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설사 감탕이 좀 쌓인다 해도 수문을 열어 밀어낼수 있으므로 배들이 다니는데는 큰 영향이 없을것 같다고 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비범한 통찰력에 그저 탄복할뿐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갑문자리를 잡아주신 후 서해갑문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갑문설계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건설이 기본공사에 들어갔을 때 가물막이공사를 돌파구로 정해주시고 여기에 기본력량을 집중하게 하시였습니다.

갑문을 건설하기 위하여 깊고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를 림시로 둘러막는 가물막이공사는 매우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많은 토론을 하였으나 이렇다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것을 료해하시고 한번에 많은 량의 물을 막아낼수 있는 새로운 가물막이방법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바다 한가운데를 둘러막고 그안의 물까지 말끔히 퍼낸 다음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어느날에는 몸소 서해갑문건설장을 찾으시여 군인건설자들의 건설성과를 치하하시고 공사를 기계화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거듭되는 세심한 지도밑에 군인건설자들은 공사를 다그쳐 마침내 언제마감막이공사를 진행하게 되였습니다.

언제공사의 가장 큰 난관은 마감막이공사에 있었습니다.

대동강물이 언제마감막이의 좁은 여울목에 집중되자 물흐름이 종전보다 3배이상 더 빨라졌으며 그것으로 하여 바닥이 심하게 패여나갔습니다.

아무리 큰 부재를 쓸어넣어도 나무토막같이 떠내려가군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갑문건설장을 다시금 찾아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물의 흐름을 분산약화시켜 언제마감막이를 쉽게 할수 있는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교시대로 갑실과 무넘이 언제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끝내고 물길을 그쪽으로 돌리였습니다.

그러자 언제마감막이구간에서 기승을 부리던 물살은 수그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언제마감막이공사를 끝내였습니다.

언제마감막이공사가 완공되는것과 함께 서해갑문건설은 전반적으로 끝나게 되였습니다.

주체75(1986)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서해갑문의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은 서해갑문은 이렇듯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서게 되였습니다.

제 16 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도와주시여

세계 여러 나라들이 1960년대초에 쁠럭불가담운동을 조직하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면서 자주적으로 나아가고있었습니다.

이 운동이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미제는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쁠럭불가담나라들에 《식량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눈앞에 닥친 난관에서 벗어나보려고 놈들의 《식량무기》앞에서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깊이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70(1981)년 8월 평양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농업발전문제를 토의하는 회의를 열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첫날 회의후 전체 회의참가자들을 만나 고무해주시고 그날 저녁에는 연회를 베풀어주시였으며 몸소 연회장에까지 나오시였습니다.

연회장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식량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회의를 조직하시고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존경의 분위기로 끓어번지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이 나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는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이렇게 교시하시였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자체의 농업을 발전시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호상협조를 강화하여 농업을 적극 발전시킨다면 식량을 능히 자급자족할수 있을것이라고 힘있게 강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뜻깊은 연설이 끝나자 연회장에서는 폭풍같은 박수갈채가 터져올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나라들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고도 매일 회의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회의가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대표단들을 만나 농업발전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러시던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회의에 온 동서아프리카나라 농업부장들의 협의회를 따로 하자고 하시였습니다.

동서아프리카나라들은 식량난을 제일 크게 겪고있는 나라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이 《식량무기》를 가장 악랄하게 휘두르는 곳도 바로 이 나라들이였습니다.

협의회를 여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기네와 탄자니아에 농업과학연구소를 꾸려주고 나머지 나라들에는 시험농장을 하나씩 꾸려줄데 대한 문제, 농업과학연구소와 시험농장들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보내며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설비들도 우리가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를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은정넘치는 연설은 참가자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식량문제를 풀고 쁠럭불가담운동을 한계단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탁월한 령도자이시라고 하면서 식량문제만 풀리면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압력도 무서울것이 없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후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

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사업을 이끌어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해 11월 어느날 아프리카나라들에 농업과학연구소를 창설하기 위해 농업조사단을 떠나보내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 어느날에는 기네에 꾸리게 될 농업과학연구소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회를 소집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회의에서 기네에 꾸려주는 연구소를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아프리카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잘 건설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면서 필요한 설비들을 수많이 해결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은정깊은 조치에 의하여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농업과학연구소와 농업시험장들이 빠른 시일안에 꾸려지고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첫해 농사에서부터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기네와 탄자니아에서만도 벼와 강냉이를 1t밖에 내지 못하던 땅에서 7~8t의 높은 소출을 거두게 되였으며 수리화를 하여 2모작도 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렇게 쁠럭불가담나라들을 진심으로 도와주심으로써 그 나라들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휘두르는 《식량무기》의 위협공갈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굳게 뭉쳐 반제자주의 한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되였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 — 그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으면서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

제 17 과
경공업제품의 갈피마다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에 열린 당 제6차대회에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변을 가져오는것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였습니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변을 가져오자면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경공업에 큰 힘을 넣어 빠른 발전을 이룩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당 제6차대회가 있은 직후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를 여시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려면 경공업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중공업토대도 튼튼히 닦아놓았고 농업생산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운것만큼 경공업혁명을 할 때가 되였다고 하시였습니다.

그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1(1982)년을 경공업혁명의 해로 정하시고 온 나라에 경공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경공업공장들이 더 잘 꾸려지고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여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경공업부문에서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줄 옷과 신발, 녀성들에게 공급할 속옷을 생산보장하는 과업을 수행하게 되였습니다.

일군들은 생산에 앞서 견본품을 만들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올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친히 유치원어린이들의 옷과 꽃댕기, 소학교학생들의 샤쯔와 바지, 세타 그리고 전문학교와 대학 녀학생

들의 굽높은 신발 등 많은 제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매우 기뻐하시였습니다.

녀성들의 속옷까지 다 보아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녀성들에게 다 차례질수 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그럴수 있게 많이 생산하고있다고 대답올리였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경공업이 때벗이를 했다, 경공업의 력사가 오래다고 하는 자본주의나라 상품보다 더 훌륭하다,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 녀성들에게 다 줄수 있게 된것이 더 기쁘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수고했소, 동무들이 수고했소, 대단히 만족합니다.》라고 거듭 치하하시였습니다.

그후 경공업부문 일군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교시를 받들고 여러 공장들과 가내작업반, 생활필수품직장들에서 생산되는 인민소비품들을 종합하여 도안집을 만들어 대원수님께 올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5만종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그 도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느라 매일 밤을 새우다싶이 하시였습니다.

어느날 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너무 늦도록 도안을 보고계시기에 한 일군이 이젠 그만 쉬실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이제 며칠만 더 보면 되겠소,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소비품도안인데 내가 안 보면 되겠소라고 하시며 도안을 한장한장 번지시였습니다.

그날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도안을 다 보았으니 가져다 출판해도 되겠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몸소 보아주신 도안집의 갈피마다에는 대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었습니다.

《손톱깎개 같은것은 크고작은것을 여러가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지 같은것은 사람마다 요구하는것이 다르기때문에 될수록 여러가지로 만드는것이 좋습니다.》

《녀자들과 어린이신발은 여러가지 색갈로 다양하게 만드는것이

좋지만 남자신발은 밤색, 회색, 검은색, 흰색 하여 몇가지 색갈로 만들면 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하나의 도안을 놓고도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여러가지 색갈표식과 부호들로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일데 대한 상세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러한 가르치심이 있었기에《인민소비품본보기도안》을 《천》, 《신발》, 《일용잡화》 등 품종별로 나누어 14권으로 완성할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경공업공장들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소비품전시회가 열렸을 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전시관들을 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기때문에 인민소비품문제만 해결하면 우리 인민들은 남부러운것을 모르고 잘살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의하여 경공업제품의 가지수가 수많이 늘어나고 질이 좋아져 인민생활은 훨씬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경공업—주로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공업부문.
방직공업, 신발공업, 식료가공공업, 일용품공업 같은 공업부문들이 여기에 속한다.

제 18 과
《과학자들이 보고싶어 왔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에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과학자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72(1983)년 3월 어느날 과학원창립 30돐을 계기로 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습니다.

과학전시관앞에서 차를 멈추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마중하는 일군들의 인사를 따뜻이 받아주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과학자들이 보고싶어 왔소. 모두 건강합니까?》

모두가 건강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잘하고있다는 과학원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였습니다.

다른 한 일군이 과학원창립 30돐을 맞으며 과학전시관을 꾸려놓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싶어 이제나저제나 하며 기다려왔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동안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 다 보자구. 그럼 되겠지.》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과학전시관으로 들어서시였습니다.

과학전시관에는 여러 부문의 과학연구성과들을 보여주는 수많은 전시품들이 전시되여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하나하나의 전시품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새로운 철생산방법에 대한 해설을 주의깊게 들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국내연료에 의한 철생산은 자신의 의사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체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신 다음 피로를 푸실사이도 없이 과학자들이 기다리고있는 회의실로 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는 과학자들에게 거듭 답례를 하신 다음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연설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고 회의실을 나서시였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되였습니다.

그때까지 잠시의 휴식도 마련해드리지 못한채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바래워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일군들의 마음은 송구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계단을 내려서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과학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그 말씀에 과학자들은 너무 좋아 환성을 올리며 얼싸안고 돌아갔습니다.

잠시후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감격에 목메여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환호하는 과학자들에게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과학적성과로 보답하리라는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바래드린 과학자들은 누구하나 움직일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대의 뻐스들이 과학원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앞뻐스에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사업하는 일군이 내려 대원수님께서 과학자들을 점심식사에 불러주시였다는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또다시 눈굽이 뜨거워져 선뜻 뻐스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얼마후 과학자들을 태운 뻐스들은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의 청류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랑이 깃든 갖가지 음식을 마주한 과학자들은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꽉 메여 음식을 들수 없었습니다.

반백의 한 로학자가 뜨거움에 젖은 목소리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어버이사랑에 과학연구사업성과로 보답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과학원에 선물기재들을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과학자들의 살림집형편을 료해하시고 일

군들이 과학자들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몸소 과학자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줄 자리를 잡아주시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지어주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과학자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고 따뜻한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의 과학기술은 세계적수준으로 높이 발전할수 있었습니다.

제 19 과
태양의 빛발을 뿌리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3(1984)년 5월 중순부터 거의 50일간에 걸쳐 당 및 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쏘련(당시)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방문기간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태양으로 높이 칭송받으시였습니다.

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탁월한 사상리론을 통하여서는 물론 대원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에 펼쳐지는 신기한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대원수님을 위대한 태양으로 우러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방문하시는 기간에 이 나라들에서는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도착하시는 시각에는 방금 쏟아지던 비도 멎고 먹장같은 구름도 사라지면서 해가 나군 하였습니다.

쏘련의 자바이깔쓰크에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까지만 하여도 씨비리바람이 불고 거리에는 먼지가 뽀얗게 날렸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도착하시게 되였을 때 바람은 잦고 날씨는 여느때없이 좋아졌습니다.

쏘련의 한 지방당 제1비서는 너무도 신기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주석동지께서 좋은 날씨를 가져다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좋은 날씨를 가지고온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따뜻이 맞이하려고 좋은 날씨를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친선의 정이 넘쳐흐르는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이런 일은 다른 나라들에서의 영접행사때와 환송행사때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한 촬영가는 전설에서처럼 펼쳐지는 날씨를 목격하고《**김일성**동지의 존함을 인민들이 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태양이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태양이 솟으면 비도 멎고 날씨도 개이기 마련이지요.》라고 흥분하여 말하였습니다.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나날에 여러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 은혜로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신 특별렬차가 쏘련의 어느 한 역에 잠간 머무를 때였습니다. 렬차에서 내려 역구내를 거니시며 마중나온 그 나라 일군들과 담화를 하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노비첸꼬에 대하여 회상하시였습니다. 그는 해방직후 평양역전광장에서 있은 행사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석단을 향하여 반동놈들이 던진 수류탄을 막은 전 쏘련군대 군관이였습니다.

노비첸꼬에 대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생각은 그가 살고있는 곳이 가까와짐에 따라 더욱 깊어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숭고한 의리에 감동된 쏘련일군들은 대원수님께 노비첸꼬와의 상봉을 마련해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역에서 그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습니다.

노비첸꼬를 뜨겁게 포옹해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수류탄을 막을 때 상한 팔을 다정히 만져

보시며 건강상태와 가정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건강해야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할수 있다고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였으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노비첸꼬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신 후 렬차에 오르시여 일군들을 부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노비첸꼬가 단 훈장을 보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가 단 훈장에는 관심을 돌리지 못했던 일군들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서운한 기색으로 노비첸꼬가 단 훈장이 분명 국기훈장 3급이였다고 하시면서 조선사람도 아닌 그가 그러한 희생성을 발휘한것은 영웅적이며 또 그러한 사실은 희귀한 일이라고 그의 공로를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모스크바에 머무르시던 날에는 노비첸꼬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할 때 그에게 왜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는가 하는 내용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까지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노비첸꼬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이 발표되였습니다.

이 소식에 접한 노비첸꼬와 그 가족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뜨거운 은정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벌가리아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남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가시는 곳마다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을 뿌리시면서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신 이 나날에 세계인민들은 **김일성**대원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시라는것을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되였습니다.

제 20 과
한 인민군부대에 생겨난 포전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1980년대에 인민군대에서 후방사업을 자체로 해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업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기 위하여 인민군대의 한 부대를 여러차례 찾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이 부대는 후방사업조건이 제일 불리한 곳에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74(1985)년 11월 어느날 부대를 현지지도하시였습니다.

달리는 차안에서 부대주둔지 강기슭의 넓은 공지를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차를 천천히 몰라고 하시였습니다.

공지에는 여기저기 바위들이 솟아있고 크고작은 돌들이 울퉁불퉁하게 널려있었습니다. 장마때마다 큰물에 씻기여 흙 한덩이 남아있지 않는 돌방천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부대의 지휘관들을 데리고 강기슭으로 나오시여 맞은편 강기슭의 절벽과 여러갈래로 흐르는 물줄기들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저기 강기슭에다 제방을 새로 막고 돌밭에는 흙을 날라다 펴서 부침땅으로 만들어야 하겠소.》

그러시면서 힘은 좀 들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서만 하여도 몇정보의 부침땅을 얻을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부대에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습니다. 군인들은 바위를 까고 돌을 추어내여 험한 돌밭을 운동장처럼 닦고 그우에 수만㎥의 흙을 날라다 폈습니다.

그리하여 돌방천에 8정보나 되는 부업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곳 군인들의 소행이 대견하시여 부대를 또다시 찾아주시였습니다.

집채같은 바위들과 물이 고인 웅뎅이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시커먼 흙과 부식토로 채워진 규격포전들이 바둑판처럼 아득히 펼쳐져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드넓은 포전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밭으로 정리해놓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8정보면 적지 않은 땅입니다.

이곳 부대 군인들이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새땅찾기라는것입니다.》

그러시고는 환히 웃으시며 일군들에게 이 기쁜 날 우리 함께 만세를 부르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들과 군인들은 목메인 소리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군인들은 그후 10여정보로 늘어난 이 포전을 만세포전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부대에서는 그후에도 계속 부침땅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을 벌려 마침내 100정보의 부업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대의 모범을 따라 모든 인민군부대들에서 더 많은 부업밭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부업밭들이 늘어나게 되자 군인들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남새문제부터 자체로 해결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아직 높은 산과 음달진 골짜기들에 흰눈이 쌓여있던 어느해 이른봄 또다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낮익은 포전들을 일일이 밟으시며 여기에는 양배추와 통배추를 심고 저기에는 고추와 오이를 심으라고 일러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곳곳에 널려져있는 부업포전들에 적지적작의 원칙에 따라 작물배치를 하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현지를 자주 찾으시여 비료도 제때에 치고 새로 개발한 뜨락또르에 의한 강우기관수도 먼저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거듭되는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부대에서는 그해에 남새를 정보당 200t이상 생산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른 인민군부대들에서도 후방사업을 자체로 잘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에서 후방사업을 자체로 해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더욱 강화되게 되였습니다.

제 21 과
40여년만에 찾아주신 백두산밀영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이 있는 백두산밀영을 찾기 위하여 깊이 마음쓰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항일혁명투사들을 백두산지구에 파견하시였습니다.

그러나 항일투사들은 다른 밀영자리들은 찾으면서도 백두산밀영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 밀영이였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찾는 사업을 자신께서 친히 맡아할것을 생각하시고 주체75(1986)년 8월 백두산지구를 찾으시였습니다.

백두산지구에 이르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여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던 어느날 소백수다리를 건느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이 골안이 어쩐지 낯이 익다고 하시였습니다.

이어 일군들에게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백두산밀영을 꾸렸던 곳 같으니 한번 조사해보라고 이르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골짜기가 첫 어구에서 끝나는것 같지만 모퉁이를 에

돌아 들어가면 더 깊은 골짜기가 나질것이고 그 주변을 살펴보면 반드시 밀영자리가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에 의하여 소백수골에 대한 조사사업이 시작되였습니다.

면밀한 조사과정에 구호나무들이 발견되였습니다. 락엽속에 묻힌 샘터와 집자리들도 찾아내였으며 집터자리에서는 다 삭아 구멍이 숭숭난 부엌세간들이 나타났습니다. 천막자리도 발견되였는데 거기에서는 탄피와 군용밥통, 삭은 법랑소랭이와 신바닥 등 많은 유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크나큰 기쁨과 감격을 안겨준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귀틀집자리를 찾아낸것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사령부귀틀집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고향집을 본래의 모양대로 복구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밀영복구사업에 참가한 건설자들과 량강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을 받드는 순결한 마음을 다 바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76(1987)년 2월 백두산밀영 개영식이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해 8월 백두산밀영이 본래 모양대로 꾸려진 소백수골을 찾으시였습니다.

40여년만에 백두산밀영을 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감회는 참으로 깊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령부귀틀집을 돌아보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고향집으로 가시였습니다.

고향집마당에 들어서시여 활짝 열려진 문으로 구름노전이 깔려있고 쪽무이포단과 모포 등이 놓여있는 방안과 부엌을 둘러보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쪽무이포단에 눈길을 멈추시고 그때 김정숙동무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얼마후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고향집앞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김정일**대원수님의 고향집을 본래 모양대로 잘 보존할데 대하여 당부하시였습니다.

이날 저녁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백두산밀영을 찾아내지 못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백두산밀영 생가를 보니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진것 같다고 하시였습니다.

계속하여 **김정일**동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백두산의 눈보라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다고, **김정일**동지는 백두산에서 태여나 고생하며 자랐기때문에 혁명성이 강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쪽무이포단

어느날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들은 백두산밀영 고향집에 들려보았다.

그런데 나어린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다 닳은 군용모포에 싸여계시였다. 그것이 너무 가슴아파 녀대원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군복에서 솜을 뜯어내고 배낭속에 간수했던 천쪼박들을 무어 열뽐도 못되는 쪽무이포단을 만들어드리였다.

《**김정일**동지는 백두산의 아들입니다.

나는 오늘 수십년만에 다시 그의 생가를 찾아보면서 백두산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위업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더 굳게 가지였습니다.

백두산고향집에 와보면 누구나 이것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몸소 찾아주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혁명의 재보입니다.

참으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백두산밀영을 찾아주시고 길이 전해갈수 있게 해주신것은 가장 귀중한 혁명의 재보를 마련한 커다란 공적이였습니다.

제 22 과
남조선의 한 목사를 만나시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1980년대에도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78(1989)년 신년사에서 남조선의 여러 당 대표들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사들을 평양에 초청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뜻이 어린 초청에 접한 남조선사람들의 마음은 평양으로 쏠리고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해 3월 남조선의 어느 한 목사가 맨 선참으로 평양에 왔습니다.

그는 나라가 분렬되여 흘러간 근 반세기의 력사를 돌이켜보는 과정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이 가장 정당하다는것을 굳게 믿게 되였습니다. 그러면서 늘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고싶은 욕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평생소원을 헤아리신듯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처럼 중대한 신년사에서 자기 이름을 찍어 불러주시였던것입니다.

그는 공화국북반부방문을 가로막는 남조선의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나라 땅을 거쳐 멀리 에돌아 마침내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가 평양에 왔다는 보고를 지방을 현지지도하시는 길에서 받으시였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 전화로 그를 통일의 사절로 내세워주고 잘 보살펴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후 현지지도의 일정을 미

루시고 평양에 돌아오시여 남조선목사를 만나시였습니다.

목사일행을 반가이 맞아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목사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선생이 이렇게 평양을 방문한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한다고, 선생이 평양방문의 용단을 내린것은 참으로 용감한 행동이라고 하시였습니다.

목사는 감격에 목메이며 《존경하는 주석님께서 저를 초청하여 주셔서 이렇게 만나뵈오러 왔습니다. 주석님의 건강한 모습을 뵈옵고보니 대단히 기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다음 마주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외국사람들하고 담화하는 식으로 멀리 앉지 말고 여기 가까이 앉아 이야기합시다. 걸상을 가까이에 갖다놓은 다음 앉도록 하십시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간격없고 소탈하신 말씀에 목사는 긴장하였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와 조국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시고 우리 조선은 력사도 하나이고 민족도 단일민족이며 문자와 언어도 같다, 지금까지 분렬되여 거의 50년이 되였는데 이제 앞으로 50년만 더 지나가게 되면 서로 말이 달라져 알아듣지 못하게 되며 풍습도 달라지게 될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두개 민족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인데 무엇때문에 두개 민족으로 되게 하겠는가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방안을 해설해주시였습니다. 이 방안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미 당 제6차대회에서 내놓으신 방안이였습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목

사는 통일의 날을 굳게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며칠후 친히 목사의 숙소를 찾아 그를 다시 만나주시였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큰 나라를 등에 업고서는 만년이 가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목사와 오랜 시간에 걸쳐 통일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작별을 앞두고 목사와 함께 평양의 경치를 부감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도 산천도 변해가는데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뵈오면서 목사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처럼 깊이 마음쓰시는 대원수님께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만나주시고 통일을 위해 힘껏 싸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신년사—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새해를 맞으며 지난해 투쟁성과를 총화하시고 새해에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을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기 위하여 하신 연설.

제 23 과
자자손손 후대들에게 보여줍시다

당 제6차대회에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더욱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은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대를 이어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이 힘차게 전진할수록 **김정일**대원수님의 위대성을 길이 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놓으시기 위하여 깊이 마음쓰시였습니다.

주체78(1989)년 무더운 여름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선물전시관건설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국제친선전람관을 찾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따뜻이 인사를 나누시고 새로 확장된 건물에 들어서시여 건설을 아주 잘했다고 치하하시면서 공사진행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시더니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아는가고 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영문을 몰라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지금 건설한것보다 더 크고 훌륭한 전시관을 새로 건설하여야 하겠는데 공사가 힘들것 같아 동무들에게 묻는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이어 문무충효를 겸비한 절세의 위인 **김정일**동지를 흠모하여 당 및 국가수반들을 비롯하여 세계인민들이 계속 많은 선물들을 보내오는데 그 선물 한점한점은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부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이곳에 **김정일**동지선물전시관을 길이 전해갈수 있게 훌륭히 건설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막 환성을 올리고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자기들이 말아하고싶었던 **김정일**대원수님의 선물전시관건설이였던것입니다.

한 일군이 기쁨에 넘쳐 **김일성**대원수님께 우리 인민과 군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김정일**대원수님의 선물전시관을 훌륭히 일떠세우겠다고 결의다지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만족해하시며 《**김정일**동지선물전시관을 잘 건설하여 자자손손 후대들에게 보여줍시다.》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계속하여 일군들과 선물전시관 건설문제를 토의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먼저 일군들에게 **김정일**동지가 받은 선물을 다 전시하자면 얼마만한 면적이 필요한가, 건설을 빨리 끝내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여야 하는가, 공사를 언제까지 끝낼수 있

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물으시였습니다.

일군들의 대답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해보자고 하시며 그들을 휴계실로 이끄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휴계실에서 일군들이 만들어놓은 설계도면을 보아주시면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시여 **김정일**동지에게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보내온 선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보내오고있지만 앞으로 더욱 많을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르는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살며 일하는 크나큰 영광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김정일**대원수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김정일**동지선물전시관을 훌륭히 건설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시면 자신의 선물전시관이라고 반대할수 있기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에게만 보고하라고,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건설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잠시후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이끄시고 자신께서 이미 점찍어놓으셨던 곳에 가시여 **김정일**대원수님의 선물전시관을 지을 자리를 정해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날 떠나시면서 다시금 선물전시관을 잘 일떠세울데 대한 간곡한 당부를 남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후 매일과 같이 건설자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면서 **김정일**대원수님의 선물전시관건설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한밤중에 장거리전화를 걸어주기도 하시였고 일군들을 보내여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도 하시였습니다. 공사과정에 난관에 부닥치면 그것을 뚫고나가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이였던 주체

83(1994)년 7월초 어느날에도 완공단계에 이른 건설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빨리 개관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이렇듯 숭고한 뜻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김정일**대원수님의 선물전시관은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김정일**대원수님의 위대성을 만대에 길이 전하시려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뜻은 한없이 숭고한것이였습니다.

제 24 과
간곡한 당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잘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전체 장병들이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주체80(1991)년 12월에 있은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때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대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나의 명령과 같이 여기고 그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갈것을 기대합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유사시에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단매에 쳐물리칠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앞으로 전군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며 최고사령관에게 충성을 다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후에도 인민군장병들에게 이러한 가르치심을 여러차례 주시

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가유자녀들에게도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 충실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 일제를 때려부시는 싸움을 벌린 로혁명가들이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나가는데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혁명가유자녀들을 한사람한사람 친히 불러 만나주시였습니다.

주체82(1993)년 1월 어느날에도 혁명가유자녀들을 불러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시고나서 그들을 곁에 세우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습니다. 이어 그들과 함께 점심식탁에 앉으시여 친어버이사랑을 부어주시였습니다.

혁명가유자녀들에게 음식을 권하시던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문득 언감자국수를 먹어보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유자녀들은 어느새 어려움을 잊고 먹어보지 못했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고생을 해보지 못한 동무들을 위해 언감자국수를 준비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산에서 싸울 때 언감자를 가지고 국수를 누르군 했는데 그 맛이 참 별맛이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유자녀들은 새로 상에 오른 언감자국수를 맛나게 들었습니다.

그러는 유자녀들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는 **김정일**동지가 마련한것이요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뜻깊은 영광의 자리가 어떻게 마련된것인가를 알게 된 혁명가유자녀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고마움에 목메이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이 **김정일**동지가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노래를 부르고있는데 그 노래가 좋습니다. 노래에도 있는바와 같이 **김정일**동지가 없으면 동무들도 없고 사회주의조국도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은 **김정일**동지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그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시였습니다.

혁명가유자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난날 부모들이 **김일성**대원수님께 충실하였던것처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충실한 일군이 되겠다고 결의다지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결의가 좋다고 기뻐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소년단원들에게도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잘 받들어모셔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가 진행되고있던 주체83(1994)년 6월이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몸소 대회장에 나가보시려고 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김일성**대원수님께 80고령이신데 어떻게 소년단원들의 행사에까지 나가보시겠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왕인 우리 어린이들이 모인 대회인데 꼭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회장에 나가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들을 축하해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소년단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참된 소년근위대로 자라나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잘 받들어모실

데 대하여 하신 간곡한 당부는 전체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주었습니다.

제 25 과
회고록을 쓰시며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탄생 80돐을 맞으시면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집필하시여 세상에 내놓기 시작하시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의 이름있는 정치가들과 문필가들이 회고록을 쓰실것을 말씀드렸지만 후에 쓰겠다고 미루어오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였습니다.

어느해 꾸바의 국가수반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였습니다.

꾸바국가수반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만나뵙는 자리에서 《**김일성**동지, 지난날의 력사에 대한 책을 왜 쓰지 않으십니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좀 더 늙은 다음에 회고록을 쓰려고 합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그토록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시고도 위대한 한평생에 대한 회고록을 쓰는것을 미루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한없는 겸허성에 꾸바국가수반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회고록을 쓰는것을 미루시며 여전히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시던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맡아보시여 어느 정도 시간을 내실수 있게 되였을 때에야 비로소 짬시간마다 회고록을 한줄두줄 써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회고록을 쓰기 시작

하시였지만 자신에 대한 회상보다 혁명동지들과 인민에 대한 회상으로 회고록을 엮어나가시였습니다.

금수산의사당주변의 숲속에서 울어대던 풀벌레소리도 잠잠해진 깊은 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습관처럼 천천히 집무실창가에 놓여있는 포대경가까이로 가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부탁을 받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마련하여 보내드리신 포대경이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안경을 벗으시고 포대경의 초점을 맞추시였습니다. 순간 푸르스름한 불빛에 비쳐진 대성산혁명렬사릉이 한눈에 안겨왔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포대경의 초점을 혁명렬사들의 반신상에 차례로 맞춰가시면서 밤가는줄 모르시고 그들과 마음속이야기를 나누시며 끝없는 추억속에 잠기시였습니다.

차광수, 김혁선생님들을 처음 만나시던 때의 일과 그들의 투쟁에 대한 가지가지의 사실들, 카룬(카륜)의 진명학교 교실에서 첫 당조직을 뭇고 격정에 넘쳐 열변을 토하던 동지들의 모습,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던 때의 동지들과 고난의 행군시기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오중흡선생님 그리고 김책선생님…

반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그때의 동지들과 인민들의 모습과 구체적인 사실들, 여러 도시들의 거리와 농촌마을들의 골목골목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삼삼히 떠오르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문득 책상우에 놓여있는 사진액틀로 눈길을 돌리시였습니다. 얼마전 일군들에게 부탁하여 받으신 지린(길림)시절의 한 청년공산주의자의 사진이였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니 그와 함께 하얼빈(할빈)거리를 누비며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하시던 일이 어제런듯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름모를 산과 들, 골짜기에서 피를 뿌리며 떠나간 동지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에 사령부의 안녕을 바라며 미소를 짓던 사랑하는 전사들의 령전에 비문을 쪼아박는 심정

으로 글을 쓰시였습니다.

회고록을 쓰시면서 자신께서 혁명투쟁을 이끌어오시며 인연을 맺으신 사람들과 그들의 자료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시려고 생각을 모으시였고 일군들에게 자주 전화도 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이처럼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의하여 수많은 혁명동지들과 혁명활동연고자들,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회고록의 갈피갈피에 소중히 자리잡게 되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에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이 세상 모든것을 얻고 백번 승리하며 인민을 멀리하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담으시였습니다.

마침내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항일혁명편 1, 2권이 세상에 나오고 그후 련이어 3, 4, 5, 6권이 출판되여 광범히 보급되게 되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을 6권까지 친히 집필하시였을뿐아니라 회고록의 총적인 구성안과 요강은 물론 거기에 담아야 할 풍부한 내용과 생동한 자료들을 문서로, 록음으로, 화면으로 다 남겨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신 후 그 구성안과 요강에 따라 자료들을 정리하여 계승본형식으로 **김일성**대원수님의 회고록을 계속 내보내도록 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회고록은 참으로 조국과 민족,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열렬한 사랑의 정신이 담겨져 있고 혁명투쟁에서 확고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위대한 진리가 밝혀져있는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입니다.

제 26 과
대원수님과 병사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탄생 80돐을 맞으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받으시였습니다.

주체81(1992)년 4월 13일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이 발표되였습니다.

이 결정에 접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김일성**대원수님 만세!》의 환호성을 높이 터쳐올리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 크나큰 감격과 기쁨은 대원수복을 입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존귀하신 모습을 뵙고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온 민족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금별이 빛나는 대원수복을 정히 지어 올리였습니다.

그리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60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게 될 경축열병식장에서 대원수복을 입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모습을 뵈옵기를 바라고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날을 따라 절절해지고있던 그해 4월 21일이였습니다.

이날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녀사의 탄생 100돐이 되는 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뜻깊은 이날 오찬회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오찬회가 한창 진행되고있을 때 녀성항일투사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 며칠후 진행하게 될 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주석단에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원수복을 입으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원수복을 입고 나와주실

것을 절절히 말씀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동무들이 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때에 나는 대원수복을 입고 **김정일**동지는 원수복을 입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국이 통일되여 통일의 광장에 나선다면 몰라도 아직 나라가 통일되지 못하였는데 나도 대원수복을 입을 멋이 없고 **김정일**동지도 원수복을 입을 멋이 없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고도 조국통일을 이룩하시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리시여 대원수복을 입으시는것을 굳이 사양하시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대원수복을 입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모습을 뵙고싶어하는 인민들의 마음은 더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느날 일군들은 우리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께서 대원수복을 입으신 모습을 력사문헌으로 후세에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저희들의 청을 꼭 들어주십시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청을 더는 거절할수 없으시여 대원수복차림을 하고 나오시였습니다.

대원수복을 입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모습을 뵙게 된 일군들은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백두산에서 일제의 100만대군을 쳐부시고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던 기상이 그대로 어려오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의 위대하고 숭엄한 모습이였습니다.

일군들은 기쁨과 행복에 겨워 《어버이수령님, 정말 멋있습니다.》라고 말씀올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며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

습니다.

사진촬영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뜻밖에도 근무를 서고있는 보초병에게 눈길을 돌리시며 《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가 되였는데 오늘은 대원수와 보초병이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대원수와 보초병, 이것은 군대의 직급을 따지면 하늘과 땅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을 제일로 사랑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원수복을 입으신 이날 보초병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려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초근무까지 교대시켜주시고 사진을 어디서 찍는것이 좋겠는가고 하시며 정원을 살피시였습니다.

4월의 봄볕에 살구꽃이 활짝 피여난 곳에 자리를 잡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기가 좋다고 하시며 보초병을 옆에 세우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습니다.

이 뜻깊은 사진은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그들을 극진히 아끼고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력사적화폭이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한없는 겸허성과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가슴깊이 느낀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대원수님을 더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제 27 과
80고령에도 포전길을 걸으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80고령에도 몸소 협동농장들을 찾으시고 포전길을 걸으시며 농사일을 지도하시였습니다.

일요일이였던 주체83(1994)년 6월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을 찾으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일요일에 잠시라도 휴식하시기를 말씀드렸지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가물에 타는 농작물이 걱정되시여 농장포전으로 향하시였습니다.

금당협동농장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농장의 포전들을 돌아보시면서 이곳 농장원들이 좋은 작황을 마련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관수시설을 총동원하여 강냉이를 비롯한 농작물들에 물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늘 한점 없는 포전머리에서 농사일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농장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한 일군을 부르시여 오늘 온천군에서 애로가 없다고 하면서 아무 제기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 비료가 절실히 요구될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가서 알아보고 계획된 비료 전량을 공급해주도록 하라고 이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금당협동농장에서 보신 기구식관수시설을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음날에도 가물피해막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있는가를 알아보시면서 사색을 이어가시였습니다.

그러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6월 21일 새로 연구하여 만든 기구식관수시설이 설치된 평양시 대성구역의 협동농장 감자포전을 찾으시였습니다.

기구식관수시설은 수소를 넣은 큰 비닐풍선을 공중에 띄워놓고 작은 구멍이 숭숭난 비닐관을 매달아놓은 다음 양수기로 물을 쏘아주어 공중에 떠있는 관에서 물이 안개비처럼 쏟아지도록 만든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기구식발관수시설로 관수를 하는 작업모습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계시였습니다.

기구를 만드는 문제가 복잡하고 많은 자재가 들었기때문이였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들에 받아들이는 문제가 걸릴수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돌아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다른 관수방도가 없겠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은 신통한 안이 없다보니 아무 답변도 드릴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중의 지혜를 불러일으키면 반드시 방도가 있을것이라고 하시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관수방법을 찾아야 하겠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성구역에 있는 어느 한 남새시험포전을 찾으시였습니다.

푸르싱싱한 남새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신듯 천천히 남새밭가운데로 들어서시였습니다.

남새밭에서는 나무짝지발우에 작은 구멍을 뚫은 비닐관을 늘인 관수기로 물을 뿌려주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짝지발우에 올려놓은 비닐관에서 물보라가 날리는 모양을 오래도록 살펴보시였습니다.

뒤늦게야 달려온 농장일군의 인사를 받으시며 그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것을 누가 연구하였는가

고 물으시였습니다.

농장일군이 집체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방법이 간단하고 경제적입니다.

며칠전에 본 기구식관수보다 더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분수식관수를 하면 적은 자재와 로력을 가지고도 지금 있는 관개시설들을 리용하여 얼마든지 모든 강냉이밭들에 물을 다 줄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오래동안 생각해오시던 발관수방법문제가 풀리게 된것이 더없이 기쁘시였습니다.

이처럼 인민들에게 식량을 넉넉히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농장에서 농장으로, 포전에서 포전으로 끊임없이 걷고걸으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자욱자욱을 따라 인민의 행복이 꽃펴났습니다.

제 28 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여시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 5일과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습니다.

이 시기는 미제가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벌리면서 우리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던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세속에서 놈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문제들을 밝혀주시려고 협의회를 여시였던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7월 5일 회의에서 전기문제를 풀데 대하여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기문제를 빨리 풀어야 경제사업이

쭉쭉 펴이여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형의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새로 건설할 발전소의 설비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토의에 붙이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여러가지 의견들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신통한 안이 못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참가자들에게 시간을 두고 더 깊이 연구해보도록 이르시고 오전회의를 끝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점심시간에도 발전소설비문제를 놓고 마음쓰시며 일군들이 제기한 안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시였습니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이 가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모습이 떠오르시였습니다.

두해전 중요한 발전설비생산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 중요성을 알려주시며 발전설비생산을 맡아해낼것을 호소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그들은 대원수님께서 발전설비생산문제때문에 그토록 마음쓰시는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꼭 해내겠다고 한결같이 결의해나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안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이번에도 그때처럼 타산을 앞세우지 않고 맡아나서리라는 믿음이 생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안으시고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기술일군들이 어느 한 화력발전소에 가보고 자체의 힘으로 필요한 발전설비를 만들어낼수 있겠는지 결심하도록 하시면서 비행기까지 내여주시였습니다.

먼 북방도시에 비행기를 띄워보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비행기가 가져올 소식을 기다리시며 밤늦도록 다음날 회의에서

결론하실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상하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협의회를 계속하시기 위하여 회의장에 나오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회의시작에 앞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기사장이 왔는가를 알아보시였습니다.

크나큰 영광에 휩싸인 기사장이 일어서며《예, 왔습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먼길을 다녀온 그의 수고를 치하하시고나서 발전소설비들을 우리자체의 힘으로 만들수 있겠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기사장은 대안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능하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로동계급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신것이 기쁘시여 《좋소, 아주 좋소.》라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습니다.

이어 협의회를 시작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흘렀으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휴식없이 회의를 계속 지도하시였습니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며 손으로 왼쪽가슴을 두드리시였습니다.

그러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뵙게 된 일군들은 자신들이 경제사업을 잘하지 못하여 대원수님께 피로가 너무나도 겹쌓였다고 생각하며 머리를 떨구고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을 믿고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쳐온 한생이였으며 인민들과 함께 투쟁해온 한생이였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있을것입니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교시를 가슴깊이 새겨안으며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신심과 락관에 넘치시여 협의회를 끝내시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80고령의 몸으로 쌓이고쌓인 피로를 이겨내시며 지도하신 이 협의회는 일군들에게 경제발전의 길을 뚜렷이 밝혀주신 회의이면서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더욱 깊이 심어주신 뜻깊은 회의였습니다.

제 29 과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

주체83(1994)년 7월 7일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추기 바로 전날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도 새벽부터 밤이 깊도록 휴식없이 일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산새들도 아직 잠에서 깨여나지 않은 이른새벽에 벌써 새날의 일을 시작하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잠이 꿀처럼 단잠이라고 하지만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새벽시간은 닭알노란자위와 같다고 하시며 늘 새벽부터 일을 보시는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굳혀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바로 전날까지 이틀째나 계속된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느라 겹쌓인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부피 두터운 문건을 한장한장 번져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해주신 아침산책시간은 감감히 잊고계시였습니다.

초조히 기다리던 일군이 더는 지체할수 없어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 아침산책시간이 되였다는것을 알려드리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정해주신 일과인데 잠간만이라도 산책을 하셔야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벌써 산책시간이 되였는가고 하시며 벽에 걸린 시계를 보시더니 **김정일**동지가 짜준 일과이니 무조건 지켜야지,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거든, 없단 말이요,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을 빨리 완성하고 **김정일**동지와 의논을 해야 하겠소, 그러니 오늘만은 산책시간을 어겨야 할것 같소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또다시 문건에 눈길을 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 력사적인 문건을 한장 또 한장 번지시며 완성해나가시였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완성된 그 문건에 활달한 필체로 《**김일성** 1994. 7. 7.》이라고 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후 한 일군에게 《조국통일은 내가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자신께서 문건을 완성했다는것을 어서 보고하라고 이르시였습니다.

이른새벽부터 시작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업은 순간의 휴식도 없이 계속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국통일문건을 완성하신데 이어 큰물피해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지도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자료들을 연구하시면서 외교사업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전력문제를 비롯한 경제사업을 지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저녁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저녁에 잠시 일손을 놓으시고 식탁에

마주 앉으시였으나 5분도 되나마나하여 식사를 끝내시였습니다. 몇술 뜨시다 마신것이였습니다.

일군들이 조금이라도 식사를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어쩐지 밥생각이 없다고, 이제 일을 더 하느라면 밥생각이 날것이라고 하시면서 집무실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오늘밤만은 부디 집무를 삼가해달라고 간절히 말씀드리였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의 생각을 내가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인민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창밖을 내다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내가 일손을 놓으면 동무네 최고사령관에게 그만큼 부담을 더 주게 될것이요.

김정일동지가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혼자 걸머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있소.

나는 **김정일**동지가 인민을 위하여 밤새워 일하는걸 보면 잠시도 쉴수가 없소.》

그러시고는 집무실로 들어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문건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어떤 대목에는 밑줄도 긋고 또 어떤 대목은 친히 고쳐주기도 하시며 밤가는줄 모르시였습니다.

이렇게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인민을 위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하루,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위대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이십니다.

제 30 과
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주체83(1994)년 7월 8일 2시, 밤이 깊도록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을 펼쳐가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큰 슬픔이였으며 돌이킬수 없는 최대의 상실이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전해지자 온 나라는 삽시에 울음의 바다,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 청년학생들은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뿌리였습니다.

온 세계가 크나큰 슬픔에 잠기였습니다.

7월 19일 **김일성**대원수님과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태양처럼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를 앞에 모시고 **김일성**대원수님의 령구차는 수백만 평양시민들이 피눈물을 뿌리며 통곡하는 수도의 거리들을 돌았습니다.

7월 20일에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가 엄숙히 진행되였습니다.

자애로운 어버이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잃은 우리 인민의 슬픔과 상실의 아픔은 비길데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김일성**대원수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계시여 인민들은 그 크나큰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피눈물의 바다에서 일떠섰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십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은 한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혁명업적으로 하여 영생하십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14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시였으며 인민의 앞길을 영원히 밝혀주는 주체사상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고 혁명군대를 창건하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였습니다.

이어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또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전쟁의 불을 지른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시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시며 이 땅우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였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무료의무교육을 마련해주신분도 우리의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갈수 있게 해놓으시였습니다.

>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걷고걸으신 현지지도로정의 총 연장거리는 57만 8천여㎞(144만 5천여리)이다.
>
> 이것은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301회 오간것과 같고 지구를 14바퀴반이나 돈것과 같은 거리이다.

또한 미제에 의하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

를 마련해놓으시였으며 세계인민들을 힘찬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세상에는 이름있는 령도자들이 많았지만 우리의 **김일성**대원수님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령도자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그 언제한번 편히 쉬지 못하시며 그처럼 위대한 혁명업적을 이룩하신 **김일성**대원수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있습니다.

세계인민들은《지구의 가장 높은 곳에 **김일성**주석의 위훈을 전하는 탑을 세우고 지구의 중심에는 주석의 동상과 그분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대혁명박물관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김일성**대원수님을 마음속에 영원히 우러러모셔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심에 의하여 영생하십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김일성**대원수님은 영생하신다는 신념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오늘의 금수산태양궁전)으로 훌륭히 꾸리시고 여기에 **김일성**대원수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정중히 모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1912년부터 시작되는 주체년호를 제정하시고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면서 영원히 기념할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또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신다는것을 헌법에 새겨넣게 하시였습니다.

참으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시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

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 계시여 오늘도 영원히 흐르고있습니다.

우리 새 세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충정을 다 바쳐갈 생각으로 가슴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는것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억세게 자라나야 합니다.

헌법－나라의 기본법.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중학교 제3학년용)

제2판

집 필 부교수 장리준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계순희 콤퓨터편성 전명희

장 정 류명심 교 정 오혜란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1판발행 주체94(2005)년 8월 27일

2판인쇄 주체 101(2012)년 3월 22일 2판발행 주체101(2012)년 4월 2일

교－12－보－547 값 5 원